

세상은 지금...

사진으로 보는 뉴스

출처 : 신화넷

‘중국어의 날’ 행사 세계 곳곳에서



1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중국어의 날’ 행사에서 유엔 글로벌 전파부 소속 미국 청년 자크 단츠가 《주역》(周易)의 한 단락을 낭송하고 있다.

‘시적 중국 · 낭만적 풍경’을 주제로 한 2025년 ‘유엔 중국어의 날’ 행사 개막식이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다.



15일, 피지 수도 수바에서 당지 학생들이 ‘국제 중국어의 날’ 경축행사에 참가해 서예를 체험하고 있다.



17일,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부르크에서 ‘국제 중국어의 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이 중국 다예를 체험하고 있다.



14일, 공연자들이 윈 유엔시티에서 열린 ‘유엔 중국어의 날’ 행사에서 중국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프놈펜—시하누크항 도로, 캄보자 ‘고속시대’ 진입에 조력



▲ 일전에 찍은 프놈펜—시하누크항 도로 톨게이트(收费站). 캄보자 프놈펜—시하누크항 도로는 캄보자의 첫 고속도로로서 수도 프놈펜과 가장 큰 심수해항인 시하누크항을 연결한다. 중국로교공정유한책임회사가 투자한 이 프로젝트는 중국—캄보자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대표적인 공사이다.

중국과 캄보자에 퍼지는 망고의 맛

▶ 일전, 한 노동자가 파운스펜성 침산현의 망고원에서 견망고를 보여주고 있다.

캄보자 파운스펜성 중보식품과학기술유한회사가 투자한 견망고 가공공장에서 가공한 견망고는 해운을 거쳐 중국 복건성 장주시 평화현에 위치한 중보(복건) 식품과학기술유한회사에 운송되어 선별, 포장된 후 며칠내에 전국 시장에 판매된다.



세계무역기구: 미국의 관세정책, 글로벌 무역 전망 악화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에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이베라(가운데)가 소식공개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16일 발표한 최신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은 글로벌 무역 전망을 엄중하게 악화시켰다. 현재 관세 상황에서 2025년 전세계 화물무역량은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지역의 화물무역 감소폭이 특히 두드러져 수출이 1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란포를 찾은 교역회 경외 구매상



광주 란포를 찾은 경외 구매상이 중국 전통 복식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4월 17일, 제 137회 광주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에 참가한 경외 구매상들이 광주 란포에서 상업무역 문화교류 활동을 벌였다.

월남 구매상, 교역회서 상업 기회 찾다



4월 15일, 황옥화(오른쪽)가 광주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에서 중국 기업이 전시한 랭장제품을 참관하고 있다. 황옥화는 월남의 한 가전기업의 부경리이다. 그가 소속한 기업은 올해 처음으로 광주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에 참가하였다.

페루 전 대통령 우말라 돈세탁죄로 15년 형

15일, 우말라(가운데)가 리마의 한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페루 고등법원은 15일 돈세탁 혐의로 전 대통령 우말라와 그의 안해 에레디아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